

2017. 5. 12. 금요일. 흐림.

오전 5시 20분 기상.

어제 처방 받은 약(속쓰림)을 공복에 복용하고, 30분 지나
복통으로 아팠다.

10시 함창란 (하남실버함창란)에 가기 위해 9시에
집을 나섰다. 내일 하남시립함창란 연주회 관례로 지휘자 선생님
께서 인사한 후시라 가셨기에, 관공님께서 반성연습에 대한
이론으로 수업을 마쳤다. 끝으로 고속라비벌 신세계에서
여호시와 종관씨를 만나 캄백스레이크와 크림다스타르 시시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일간 속이 쓰린 증상이 오늘은 조금 가라 앉은 듯 하였으나
그냥 그렇다. 배관다에 식물들도 내가 아프니 자기들도
힘이 없는지, 아니면 날씨가 흐려서인지 생기가 없어
보인다. 내일은 햇빛과 나의 몸상태가 또한 바뀌어 나의
식물을 가지도 환하게 웃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녁에 큰 역시 복통으로 간단히 먹었다. 조심스레
호플레르 하나 먹어보았다.

내일 연주회 관례를 위해 입고 갈 옷을 챙겨 두고 잠자리
에 들었다. 굿나잇 -

1945. 7. 17.

10-8277-1059

김종욱.